

## 기억의 문을 열며

1945년 10월 어느 날,  
미군정관 홈펠 중위가 통역관을 대동하고 자경전에 머물고 있던 이경성을 찾아옵니다. 이야  
기인즉, 인천에 향토관이 있는데 박물관으로 만들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경성은 서울을 떠나 인천으로 향합니다.

인천시립박물관이 탄생하는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현실은 순탄하고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향토관에 존재하고 있던 선사 유적과 개화  
기 유물들, 일본인들로부터 몰수한 세관 창고에 쌓여있던 물건들, 다행히 아직 녹지 않고 부  
평조병창에 남아 있었던 중국에서 온 커다란 종과 향로들의 존재는, 우리가 방금 벗어난 비참  
한 식민지 역사의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낡은 마루를 고치고, 페인트칠을 해서 아름답게 단장합니다. 그의 조력자인 홈펠 중위와 함께  
인천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지프차에 유물을 실어와 건물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남은 일은 좋  
은 날을 택하여 박물관을 개관하는 것이었습니다. 날씨는 어렵지 않게 잡혔습니  
다. 만국공원에 꽃이 만발하는 1946년 4월 1일, 바로 70년 전 오늘입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퇴적된 두꺼운 기억 속을 탐색하려고 합니다. ‘향  
토’라는 개념이 우리를 이끄는 단서가 될 것입니다.



## 기억은 오래 지속된다

1946년에 시작된 인천시립박물관의 ‘향토’를 향한 탐색 여정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의욕에 가득 차서 곧 꿈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원점을 잃고 표류하던 시절도 있었  
습니다. 고적에서 향토를 찾아내려 하기도 했고, 사물의 표면에서 향토색을 탐색하기도 하였습니다. 되돌  
아보면 길고 긴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지만 이 또한 지나가는 시간의 흐름 위에서의 평가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 박물관은 인천 시민의 삶과 지역의 역사 속으로 눈을 돌려 그것을 지역의 문제로서 재현해 내려  
고 합니다. 물론 삶과 역사는 아름답지만은 않고, 간혹 대결과 고통과 상처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  
는 말합니다. 왜 지나간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현장을 재조명하며, 신경쓰지 않았으  
면 하는 ‘타자’를 불러내려고 하느냐고.

이에 대해 우리 박물관이 여기에 다다른 것은 ‘향토성의 완성’이라는 박물관의 오래된 숙제를 풀기 위해 달  
려온 결과일 뿐이라는 대답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향토라는 이름 밑에는 지역 박물관의 사명이라는 문  
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박물관이 시민의 삶과 지역의 역사를 재현해 내  
고자 하는 오늘날이야말로 지역의 공동성을 추구한다고 하는 실제 사명에 처  
음으로 직면한 것은 아닌가 합니다. 그렇기에 “트라우마는 과거 상처의 결과  
이기도 하지만 행복과도 결부되어 있다”는 말은 용기를 줍니다.

» **舊제물포구락부** 1953년부터 1989년까지 인천시립박물관이 사용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인천시립박물관 개관 70주년

박물관  
70년,  
기억의  
문을  
열다

2016. 4. 1 - 6. 9



2194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032.440.6750 <http://museum.incheon.go.kr>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 1946~1950, 세창양행 사택 시절

1946년 4월 1일, “민족적 해방의 환희 속에서 인천시립박물관은 탄생” 하였다. 일본이 남긴 향토관이라는 공간, 그들이 본국으로 미처 반출하지 못한 동아시아 곳곳에서 긁어모은 잡다한 유물들, 그리고 제국의 중심 와세다에서 미술사를 전공한 이정성이라는 특출한 인물이 박물관의 자산이었다.

“소장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수집하였다. 첫째, 이 건물 속에 있었던 향토관의 유물들로 선사 유적과 개화기의 유물 또는 사진들, 둘째, 국립중앙박물관의 김재원 관장을 졸라서 빌려온 문화재급 작품 19점, 셋째, 국립민속박물관의 송석하 관장을 설득해서 빌려온 60점의 민속품, 넷째, 본국으로 물러가는 일본인들에게서 몰수하여 세관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것들, 다섯째, 장석구라는 골동상에게서 받은 도자기 19점, 여섯째, 지금 박물관 앞뜰에 놓여있는 (인천육군조병창에서 가져온) 중국의 커다란 종을 비롯한 철물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지역 박물관의 사명인 향토 문화를 계발시키기 어려웠다. 오히려 향토성의 결핍을 여실히 나타내 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었다. 박물관과 지역을 이어줄 연결고리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정성은 생각한다.

“인천박물관의 근본 사명의 하나인 인천 향토사의 완성은 인천 부근에 산재하고 있는 고적 조사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

1947년 경주고적조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1949년부터 문학 방면 고적을 조사했다. 동춘동 방면도, 계양산 방면도, 주안 방면도, 덕적도와 선미도도 조사했다. 다년간의 조사를 통해 그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우수한 고적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했다. 그러나 “조선사학(朝鮮史學)이 아직 방법론의 세계를 방황하고 있던 때”이니 만큼 ‘인천 향토사’를 완성한다는 것은 지 난하고 먼 미래의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 물려받은 유물들의 뒤섞임에서 출발하여, 인천의 이곳저곳에 묻혀있을 고적을 발굴함으로써 향토사를 완성하리라는 꿈은 인천시립박물관의 원점이 될 것이었다. 이리하여 인천의 ‘향토성’ 탐색을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 1953~1989, 제물포구락부 시절

“1950년 9월 15일 오후 4시, 70년의 역사를 가진 우수한 건축물 인천시립박물관은 전란의 고귀한 희생이 되어서 허무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다행히도 박물관에 진열되었던 소장품은 천우신조로 미리 소개하였기 때문에 전 부 파괴의 마수에서 벗어나 완전히 보존되었던 것이다”

이정성은 미해군사령관을 직접 만나 미군이 사용하고 있던 정방각(精芳閣)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양도 받는다. 제물포구락부 시절의 시작이었다.

1953년에는 복관 기념 전시 『제1회 고서화전(古書畵展)』이 열렸다. 그 후 『문충 주최 미술전』(1953), 『한미친선 예술사진전』(1954), 『남녀중고생 미전(美展)』(1955~1958), 『개관 10주년 기념 개인소장전』(1956) 등이 개최되었으나 인천 향토사의 완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향토 인천 문화를 위하여 인천시립박물관을 또다시 세워야겠다…’ 는 이정성의 투지에도 불구하고, 전후의 박물관은 예전 같지 못했다. 1954년 3월 말, 이정성은 박물관장직을 사임한다.

고적 조사는 계속되었다. 1955년만 해도 한 달에 3~6일씩 답사를 나갔다. 그러나 도자기 편이나 벽돌을 수습하는 정도에 머물러 성과나 규모면에서는 주목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나마 그동안의 고적 조사 결과를 『인천의 고적』(1953년)으로 정리한 것과 인천에 관한 사료를 발췌한 『인천향토사료』를 정리한 것이 위안이 되는 일이었다. 이러한 와중에 1965~1966년에 걸쳐 진행된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 발굴조사는 인천시립박물관의 원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일대 ‘사건’이었다. 4차례에 걸쳐 국립중앙박물관과 합동으로 이루어진 이 조사로 인해 녹청자는 한국 도자 발달사의 한 단계로 비정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말 인천시립박물관은 침체의 기운이 역력했다. 제6대 박물관장인 우문국은 박물관이 “자유당 정권 말엽부터 근래(1962)까지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를 국가와 향토의 자량이 될 수 있는 박물관의 존립 가치를 충분히 고려 못한 시(市)의 관심 부족 이라고 보았다. 실제로 그러했지만, 박물관의 사명인 향토라는 원점에서 생각한다면, 박물관과 지역 사회의 간극은 너무 넓었고, 그 거리를 감내할 수 있는 역량은 부족했다. 방향과 동력을 잃고 원점을 떠나 표류하던 시절이었다.

## 1990~현재, 옥련동 시대

1990년 1월, 길고 길었던 침체의 침묵을 깨고 인천시립박물관이 옥련동 새청사로 이전하였다. 이제 박물관만을 위한 어엿한 건물을 갖게 된 것이다.

옥련동 시대 박물관을 둘러싼 환경은 초창기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다. 바야흐로 지방자치의 시대였고, 지역의 고유성을 찾아 정체성을 창출해 내는 것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향토’가 시대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처음에는 인천에서 출토된 유물이나 인천 출신 사람들이 남긴 작품에서 향토색을 찾으려 하였다. 1990년부터 200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는 사물에 깃든 향토색의 탐색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인천이라는 지역의 향토색을 사물이나 작품에서 찾기에는, 인천에 소재하는 사물은 너무 일반적이었고 인천 사람들이 남긴 작품 또한 보편적이었다.

인천 사람들의 삶을 틀 지우는 조건 of 고유성에서 향토성을 찾으려는 시도는 이와 같은 곤란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 전환을 통해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대립, 땅에 묻혀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과거의 상처, 우리 옆에 있던 ‘타자’라고 하는 보편적 문제들이, 인천이라는 특정한 공간과 지역사적 맥락 속에서 또렷한 얼굴로 떠올랐다.

전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전환이 내포하고 있었던 문제들, 즉 갈등, 상처, 타자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동성(共同性)이 가능할지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